

올림픽 2차 최종예선서 시리아 꺾고 3연승 질주 '박성화호'

공격 보장...가파른 상승세 예고

박주영도 곧 가세...환상의 투톱 회복
수비진 아직 불안, 체력저하도 문제

파죽의 3연승으로 베이징행 여정의 반 환점을 든 박성화호(號)가 한층 더 가파른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은 지난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B조 3차전에서 전반 9분 김승용의 헤딩 결승골로 중동의 북벌 시리아를 1-0으로 제압했다. 특히 3연승을 질주중인 박성화 호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인다. 공격진의 보강이 큰 힘이다. 오랜 재할 끝에 '박성화 감독의 예제자' 박주영(서울)이 돌아오고 또 한명의 멀티요원 이청용(서울)도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어 다음 달부터 실전 기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화 감독은 12일 시리아전을 함께 운 승리로 이끈 뒤 한 골에 그친 아쉬움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센터포워드 자원이 많아진다면 전술 운용의 폭을 넓히고 득점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기했다. 박주영이 돌아오면 당장 처진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있고 시리아전에서 그 자리를 임시로 맡았던 김승용(광주)이 오른쪽 측면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오른쪽 공격수로 변신한 이상호(울산)는 원래 멀티 요원이라 쓰임새가 다양하다. 박주영과 신영록(수원)이 전방에서 호흡을 맞추게 되면 박성화 감독이 2005년 20세이하(U-20) 청소년월드컵에서 중용했던 환상의 투톱 라인을 올림픽호에서 되살리게 되는 셈이다. 이청용도 중앙과 측면에 모두 쓸 수 있는 자원이다. 기성용(서울)과 이청용은 K-리그 올 시즌 초반 귀네슈호 FC 서울

의 상승세를 주도하며 '두 마리 용(龍)'으로 불렸다. 세를 귀네슈 서울 감독도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박 감독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비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좀 답답해진다. 물론 최종예선 세 경기에서 자책골로만 단 1실점한 올림픽호 수비진이 아직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다. 박 감독이 철석같이 신봉하는 포백(4-back) 수비라인은 최철순(전북)이 경고누적으로 빠졌을 때를 제외하면 최철순(왼쪽 윙백), 김진규(서울)-강민수(전남-이상 중앙), 김창수(대전-오른쪽 윙백)가 거의 불변의 조합이다. 문제는 체력이다. 김창수는 "축구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뛰가 났다"고 했다. 그만큼 체력적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소속 팀에서도 다들 주전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원정까지 겹치다 보니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인환(전북), 배승진(요코하마) 등이 뒤를 받쳐줘야 해야 하지만 박 감독의 눈에는 아직 차질 않는다. 공격전에 날개를 달게 될 박성화호에 든든한 백업 수비진까지 보강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본선행 언제쯤 결정 될까?

바레인 승패 따라 변수 많아
11월 5차전서 판가름 날듯

파죽의 3연승으로 베이징올림픽행 여정의 7부 능선을 넘은 박성화호(號)가 언제쯤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까. 올림픽축구대표팀은 9일 바레인 원정에서 1-0 승리로 최대 고비를 넘긴 데 이어 12일 시리아를 1-0으로 연파해 장거리 이동 부담 속에 치른 어웨이-홈 2연전에서 승점 6을 보냈다. 현재 승점 9로 2위 바레인(2승1패 승점 6)과는 승점 3 차이로 B조 단독 선두다. 사실 희망 사상은 바레인인 12일 우즈베키스탄 원정에서 지거나 비겨 승점 5~6 차이로 격차를 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레인이 후반 인저리타임에 터진 극적인 결승골로 2-1 승리를 낚아 격차는 그대로 유지됐다. 만일 바레인이 끝까지 연승 행진을 펼치고 나머지 두 팀인 우즈베키스탄과 시리아가 맥없이 무너진다면 박성화호는 막판 의외의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은 11월21일 바레인과 홈에서 최종에서 6차전을 남겨두고 그 전까지 두 팀이 모두 전승할 경우 각각 5승과 4승1패가 된 상황에서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마지막 한 판에서 선두 자리가 뒤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박성화호의 무난한 시나리오는 10월17일 시리아 원정에서 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바레인이 같은 날 홈에서 우즈베키스탄에 탈미를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승점 12)과 바레인(승점 6)의 격차가 두 경기를 남겨놓고 6으로 벌어져 본선행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간다. 나란히 승점 1에 머무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시리아는 어차피 자리를 위협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지배적인 예상으로는 5차전이 열리는 11월17일 본선행이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박성화호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원정을 떠나고 바레인은 홈에서 시리아를 맞는다. 한국이 5차전까지 1승1무를 하고 바레인이 2패를 하면 확정되고, 박성화호가 2승을 더 보태면 바레인 역시 2승을 거두지 않는 한 본선 티켓을 손에 넣는다.



브라질 카카 골 세리머니 13일 미국 폭스보로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 멕시코의 '월드투어' 친선경기에서 브라질 공격수 카카가 후반 35분 결승골을 넣은 뒤 기쁨의 세리머니를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2차 남북정상회담
올림픽 단일팀 돌파구"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답보상태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47명에 포함돼 방북을 앞둔 김 회장은 13일 "정상회담 때 체육 분야 조인을 맡을 것 같다. (문재덕 조선올림픽위원회장과) 회담이 이뤄지기 어렵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완전 합의되지 않은 단일팀 구성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남북 정상은 큰 틀에서 화해협력과 교류원칙에 합의하면 실무적인 부분은 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단일팀 구성에 큰 견해 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수 선발 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개인종목은 올림픽 지역예선에 참가해 티켓을 딴 선수가 나가면 된다. 다만 7개 단체(구기)종목은 기량 위주로 선발하되 메달이 가능한 하키와 핸드볼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축구의 경우 여자는 북한이 강하고 남자는 남쪽이 잘하니 6대4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는 등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앞서 지난해 2006 도하아시안게임까지 네 차례 체육회담을 벌였지만 '실력 위주로 뽑자'는 남측과 '5-5 동수 구성'을 주장하는 북측이 맞서 결렬을 내리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4일(금)
▲리우 세계유도 선수권대회(08 : 30·MBC ESPN)
▲메이저리그(뉴욕Y-토론토)(08 : 00·Xports), <샌디에이고-LA다저스>(11 : 00·Xports)
▲국민생활체육 씨름연합회장배 전국장사씨름대회(11 : 00·MBC ESPN)
▲제12회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여자프로골프 1R(12 : 40·MBC)
▲제12회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 폴로(13 : 00·KBSN SPORTS)
▲2007 세계유도선수권대회(15 : 00·MBC)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 : 50·SBS 스포츠)
▲프로야구<삼성-한화>(17 : 40·KBSN SPORTS, 18 : 00·MBC ESPN)
▲FIFA 여자 월드컵 2007<북한-나이지리아>(21 : 00·SBS 스포츠)

북한축구 3전 전패
올림픽행 '빨간불'

북한이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3전 전패를 당해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알라이안 SC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3차전 이라크와 원정경기에서 전반 21

분 칼둔 이브라힘과 후반 23분 알라 압둘라에게 한 골씩 허용해 0-2로 무릎을 꿇었다. 호주, 이라크, 레바논과 함께 같은 조에 속한 북한은 이로써 지난 달 23일 레바논(0-1패), 지난 8일 호주전 패배(0-1)에 이어 3연패를 당해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이라크는 전날 레바논을 3-0으로 꺾은 호주와 2승1무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 앞서 조 1위로 뛰어 올랐다. 북한은 내달 17일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으로 이라크를 불러들여 홈 4차전을 벌인다.

Advertisement for '루스터핀츠' (Luster Pints) featuring images of the produc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air and skin. The text includes '루스터핀츠' and '루스터핀츠' and mentions '1577-2787'.

Advertisement for '장수출삼밥' (Jangsu-chul-sambap) featuring images of various rice dishes and text promoting '100% 유기농이자천도점' and '자연 그대로... 우리밥에 좋은 유기농산물입니다'.